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광주문예회관

예술단, 5개 자치구 공연장에서 ‘찾아가는 가족 음악회’ 열어

어린이 국악 뮤지컬 제작 ... 합창단 40주년 대규모 음악회도

광주문예회관이 2016년,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예회관은 광주시립교향악단 등 산하 7개 예술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 밀착형 기획을 준비중이다.

먼저 예술단들의 주 공연장인 문예회관 대극장과 소극장을 벗어나 5개 자치구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가족 음악회’를 신설했다. 모든 연령층이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친숙한 레퍼토리 중심의 음악회다.

‘찾아가는 예술단’은 아와 공연을 늘리는 등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전당 주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아와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무등산 개방과 연계한 산사음악회 등도 준비중이다. 기존에 복지시설, 교도소, 병원, 학교 등 개별 공간에서 열렸던 공연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미래의 음악 애호가를 키우기 위한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도 2016년 추경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중이다.

눈에 띄는 건 해의 교향악단 내한 공연이다. 회관 측은 10월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갖는 네덜란드 방송교향악단 내한 공연을 추진키로 하고 5월 중 광주시 주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어린이 뮤지컬 ‘흥부랑 놀부랑’도 제작한다. 시립국악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국극단 등 3개 단체가 합동 제작하는 국악 뮤지컬로 ‘국악 본고장’ 광주를 알리는 지역 대표 문화 콘텐츠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밖에 국악교실, 여성합창교실, 어린이 동요교실 등을 운영하며 특히 발레단의 경우 지난해 개설돼 인기를 모았던 성인 발레 수업을 한 차례 늘려 진행할 계획이다.

시립예술단체들의 행보도 눈에 띈다. 합창단의 창단 40주년 기념음악회 ‘추억과 함께 하는 음악여행’이 관심을 모은다. 이번 공연은 1973년 시민합창단에서 출발해 40년의 역사를 이어온 합창단은

역대 지휘자들과 단원들이 함께 출연하는 대규모 무대다.

국악관현악단은 특별 기획공연으로 ‘KOREA 아리랑’을 준비중이며 국극단은 창극 ‘이순신’, 발레단은 한중 수교 24주년 기념 ‘한중공연예술제’를 열 계획이다. 또 교향악단(도쿄), 무용단(광저우), 국악관현악단(몽고), 소년소녀합창단(광저우·대련)이 해외 공연을 추진중이다.

문예회관 인프라 개선에도 나선다.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극장 무빙 라이트와 콘솔 등을 구입하며 또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연장 음향 컨설팅 및 설계 용역을 진행한다. 또 대극장과 소극장을 이어주는 로비 공간에 갤러리를 만들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풍피두센터에서 문화전당을 생각하다

함정임 칼럼



신춘문에 심사 차 광주에 다녀온 뒤, 새해 초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다. 지리산을 넘어 광주에 다녀온 기운이 파리로 이어졌다. 광주일보 14층에서 내려다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그 너머 병풍처럼 펼쳐진 무등산의 윤치가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광주에 하루 더 머물며 새로이 개관한 아시아문화전당을 탐사하고 싶었다. 그러나 세상에 선보이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라, 정작 관계자들도 시민들도 정비와 적응 단계를 거쳐야 제대로 기능과 가치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기에,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지리산을 넘어 부산으로 돌아왔다. 대신 유사 기관인 영화의 전당(부산)과 풍피두센터(파리)를 잇달아 방문했다.

영화의 전당과 풍피두센터는 서울, 부산, 파리를 오가는 내 삶의 궤적에서 가장 친숙한 ‘생활’ 영역이다. 우선 영화의 전당의 경우, 내력이 청춘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시절 프랑스문화원의 시네 클럽에 드나들 때부터, 영화는 나에게 한 편의 문학작품, 한 권의 소설책과 같은 의미였다. 서울 경복궁 맞은 편 시간동에 위치했던 프랑스문화원의 영화감상실은 세계적인 흐름의 문화예술 자료가 희귀했던 시절, 불문학도였던 나를 비롯 한국의 시네키즈(영화 매니아)들에게 오아시스이자 젓줄 역할을 담당했다.

내가 예술문화복합 공간인 풍피두센터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서울의 프랑스문화원에서였다. 당시 핫 이슈가 막 개관한 루브르 피라미드였고, 그보다 십년 먼저 선보인 풍피두센터와 함께 새로운 도전의 건축물들이 도시 역사와 미관, 도시인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지 기사들을 탐독했다. 개인 소유물이라고 하더라도 기왕장 하나 마음대로 운용할 수 없는 고도(古都) 파리 한복판에 666개의 유리를 철골에 끼워 맞춘 이오맹페이의 루브르 피라미드와

송수관들을 외부로 노출시킨 렌조 피아노의 풍피두센터가 주는 이물감은 가히 충격적인 수준을 넘어 파괴적이라 할 정도였다.

파리 풍피두센터의 정식 명칭은 국립 조르주 폼피두 예술문화센터(centre national d'art et de culture Georges-Pompidou)이다. 이곳의 특징은 네 가지(도서관, 미술관, 음악음향기록보관, 창작) 기능(function)을 융합시킨 공간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기능’적인 측면이다. 기능이란 우리 몸의 연골처럼 고유한 장르가 얼마나 원활하게 연계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관광객으로, 또는 유학생으로 파리에 첫 발을 들여놓는 사람은 풍피두센터의 위치와 형상, 콘텐츠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취향과 본연에 따라 도서관이든 영화아카데미든, 창작관이든 집중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풍피두센터를 뉴욕의 모마나 런던의 테이트갤러리처럼 세계 현대 미술의 메카로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곳이 융합 공간이라는 점을 한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파리에서 유학한 한국인 상당수가, 길고 고된 석박사 논문을 이곳 도서관에서 완성한 경우가 많을 정도로, 장서량이 방대하고, 학생이든 관광객이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개방성과 이용도가 탁월하다. 현재 내가 파리에 단기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미술관보다 더 오래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이 도서관이다.

파리 보부르 광장에서 빨강 파랑 하양의 트라스(삐다)가 두드러진 풍피두센터를 바라보며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sia Culture Center)을 생각한다.

개관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일부러 정보를 찾아보지 않으면 광주 지역 이외의 어디에서도 존재감을 느낄 수 없다. 송고한 정신이 깃든 최고의 공간을 마련한 만큼 만인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풍피두센터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을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주 지역만의 문화예술기관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국내외 전문가의 개방적인 참여와 운용이 관건이다. 아시아문화예술교류의 허브라는 구호에 걸맞게 사방에서 발길이 쏠리고, 원활한 혈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격적인 도전과 유쾌한 창조 기능을 기대한다.

〈소설가·동아대 한국어학과 교수〉

순천기적의도서관 편해문 사진전



‘이만큼 올라갈 수 있어’

순천기적의도서관(관장 정봉남)이 오는 2월 29일까지 놀이운동가 편해문 작가 사진전을 개최한다.

‘아시아의 아이, 놀이와 놀이터’를 주제로 한 이번 사진전에서는 편해가 10년 동안 인도, 네덜,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곳곳을 돌아다니며 담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작가는 “빈곤과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아이들은 놀면서 앞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에게 놀이는 허락되

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영글어 담았다. 굴렁쇠를 앞에 두고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인도의 아이들, 낡은 트럭 위에서 환하게 웃음을 터트리는 소년 소녀들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사랑스럽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지난해 순천기적의도서관이 진행한 ‘기적의 놀이터’ 프로그램 활동 사진과 어린이 놀이문화 관련 도서도 함께 전시된다. 문의 061-749-890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담양 담빛예술창고 1년 활동 결과보고전



담양 담빛예술창고에서 설치된 윤남웅 작가의 작품 ‘예술가는 가슴속에 새를 키운다’ (왼쪽)와 1년간 활동을 정리한 사진전시물. <담빛예술창고 제공>

방치된 양곡창고 리모델링

복합 전시장·카페 등 꾸며

담양 담빛예술창고가 지난 1년간 활동을 정리한 결과보고전을 창고내 전시장에서 2월21일까지 개최한다.

담양읍 객사리에 자리잡은 담빛예술창고는 방치됐던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해 지난 9월 개관하며 주목을 받았다. 330㎡ 규모 건물 2개에 복합전시장과 카페, 문화예술 교육공간 등을 꾸며졌다. 카페에는 국내 유일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돼 정기적으로 연주회도 열리고 있다. 관방제림, 죽녹원 등과 인접하며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했다.

이번 행사는 양곡창고가 지금의 예술창고로 거듭나기까지 행보를 사진과 영상 등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열린 주민설명회, 전문가 워크숍, 커뮤니티 ‘수다방’, 개관전, 한중교류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담빛예술창고는 지역색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꾸준히 했다. 개관전시는 이이남, 정운학 등 지역 출신 뿐 아니라 이병찬 등 타지역작가들도 참여해 회화, 설치, 미디어가 결합된 인터랙티브 예술을 선보였다. 또 영·호남교류 일환으로 박명숙 디자이너를 초청해 패션을 소개했으며 중국 리강 작가 등이 참여한 한·중 교류전을 열었다.

장현우 총괄기획팀장은 “앞으로도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현대 미술전시 위주로 운영해 담양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문의 061-380-348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各種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の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人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제품문의 한국제다 본사 062-222-3973 | 차생원 본점 062-232-3973 |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부산 차생원 051-7007~8